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0-7700

“의기양양, 을미년 향해 뜁니다”

2015 시즌 첫 훈련에 나선 광주 FC 선수들이 7일 광주월드컵경기장 트랙을 뛰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FC 첫 공식 훈련…2월까지 제주·일본 등 전훈 나서

남기일 감독 “초심 잃지 않고 또 한번의 기적 만들겠다”

또 다른 기적을 향한 광주 FC의 위대한 도전이 시작됐다.

K리그 클래식 광주 FC가 7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2015시즌 첫 공식 훈련을 소화했다.

기존 선수 16명과 신인 선수 11명, 입단을 앞두고 있는 선수 2명 등 총 29명은 상견례를 갖고 2015 시즌에 첫 발을 내디뎠다.

감독대행 꼬리표를 떼어내고 정식 감독으로 새 출발을 한 남기일 감독은 “어려웠던 지난 시즌 간절함을 가지고 1부에 올라오게 됐다. 우리 한계를 시험해볼 수 있는 무대가 기다리고 있다.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우리의 능력을 시험해보자”며 다시 만난 선수들을 독려했다.

승격의 여운을 안고 다시 만난 선수들과 프로무대를 앞에 둔 신인 선수들, 각자의 위치와 꿈은 다르지만 목소리는 하나였다. 이들은 한데 모여 “우리는 하나다!”를 크게 외치며 본격적으로 새해 첫 훈련을 시작했다.

험난했던 도전의 시즌을 버텨내고 승격의 기쁨을 이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도전의 시간이라는 것이 선수들의 생각이다.

지난해 주장 임무를 맡아 최고의 시즌을 보냈던 임선영도 ‘도전’을 이야기 했다.

임선영은 “분위기는 더 좋다. 지난해에는 초조하고 승격을 해야한다는 불안감이 있었지만 올해는 도전자 입장이라서 조금은 편한 것 같다. 다시는 내려가고 싶지 않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남아야 한다. 상무의 경우를 보니까 생각보다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다. 다시 한번 기적을 일으켜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임선영 개인에게도 2015년은 도전의 시간이다. 광주 FC 창단 멤버로 보낸 지난 4년의 시간 클래식 무대도 경험했지만 그때는 부족한 게 더 많았다. 이제는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거친 무대에 부딪혀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임선영은 “지난해 챌린지 리그에서 득점도 하고 주축 선수로 역할을 했는데 클래식 리그에서도 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된다. 클래식 리그에서의 경험도 적고 그때는 경황도 없었지만 조금은 더 성장했다. 클래식에서도 좋은 선수가 되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K리그 2015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광주 유니폼을 입은 신인 허재녕(미드필더·아주대)도 “클래식에서 프로 데뷔를 하게 돼 영광이다.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하면서 또 신인이니까 선배들과 잘 어울려서 빨리 팀에 녹아들도록 하겠다”고 가슴 떨리는 새 출발을 반겼다.

한편 광주 선수들은 오는 17일까지 광주에서 1차 체력 훈련을 갖는다. 19일부터 30일까지는 광양이나 울진에서 2차 전술훈련을 진행한다. 실전 위주로 진행될 3차 훈련은 제주 또는 일본에서 2월 2일부터 21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871억 ‘메시’

세계 축구선수 몸 값 1위

호날두 1736억…손흥민 274억 97위

가장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축구 선수는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스포츠연구센터(CIES) 축구연구소가 2009년부터 쌓은 각 선수의 기록, 팀 공헌도, 나이 등의 자료와 1500개 구단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메시의 현재 이적료 추정치는 2억2000만 유로(약 2871억3000만 원)로 나타나 선수 몸값에서 1위를 차지했다.

메시와 쌍벽을 이루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는 1억3300만 유로(약 1735억8000만원)로 2위에 올랐다.

메시는 지난해 국제축구연맹(FIFA) 발롱도르(Ballon d‘Or)를 호날두에게 넘겨주고 바르셀로나에서 무관에 그친데다 월드컵에서 준우승하는 등 아쉬움 짙은 한 해를 보냈다. 이 가운데 잉글랜드 맨체스터 시티, 첼시 등 부자구단이 그에게 러브콜을 보낸다는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반면 호날두는 지난 시즌 레알 마드리드를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정상으로 올려놓고 발롱도르를 받는 등 최고의 한 해를 보냈기에 결과는 다소 의외라는 평가도 있다.

한편 첼시는 에덴 아자르(9900만 유로·약 1292억1000만원)가 3위에 오르고 디에고 코스타(8400만 유로·4위), 세스크 파브레가스(6200만 유로·8위) 등 몸값 ‘톱 10’에 드는 선수를 3명이나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맨체스터 시티의 세르히오 아궤로(6500만 유로·6위), 리버풀의 라힘 스털링(6300만 유로·7위), 아스널의 알렉시스 산체스(6100만 유로·9위) 등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무대를 누비는 선수는 모두 6명이 톱 10에 들었다.

2013년 여름 유럽 축구 역대 최고 이적료를 갱신하며 레알 마드리드로 옮긴 가레스 베일은 몸값 6000만 유로(약 783억1000만원)로 10위를 차지했다.

한국 선수로는 손흥민(레버쿠젠)이 2100만 유로(약 274억원)로 공동 97위에 오르며 유일하게 톱 100에 들었다. 손흥민의 몸값은 페드로 로드리게스(바르셀로나), 아르다 투란(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스테판 요베티치(맨체스터 시티)와 같다. /연합뉴스

한국축구 55년만에 아시안컵 정상 도전

슈틸리케 감독

16개국 참여 내일 호주서 개막…호주-쿠웨이트 개막전

한국, 10일 오만·13일 쿠웨이트·17일 호주와 조별리그

4년마다 찾아오는 아시아 최고의 축구 축제가 다시 성대한 열전을 시작한다.

개최국 호주와 쿠웨이트는 오는 9일 호주 멜버른의 렉텡귤러 스타디움에서 2015 호주 아시안컵의 개막전을 치른다. 본선에 출전한 16개국은 오는 31일까지 조별리그와 토너먼트를 소화한다.

아시안컵은 아시아 국가들이 월드컵 본선 다음으로 크게 여기는 대륙별 선수권대회로 1956년 홍콩 대회를 시작으로 4년마다 아시아 국가를 돌며 열렸다. 호주는 아시아축구연맹(AFC)의 회원국으로서 아시안컵을 유치했다.

아시안컵은 2004년 중국 대회까지 짝수 해 4년 주기를 지켜오다가 2007년부터 홀수 해에 개최했다. 미니 월드컵으로 불리는 유럽선수권대회(유로)와 겹치면서 흥행도가 떨어지는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아시안컵을 제패하는 국가는 ‘아시아 챔피언’이라는 칭호를 쓸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일본은 1992·2000·2004·2011년 등 4차례나 우승컵을 들어 올려 최다 챔피언 영예를 안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1984·1988·1996년, 이란이 1968·1972·1976년 대회를 제패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한국은 1956년 초대 홍콩 대회, 1960년 서울 대회에서 2연패를 이룬 뒤 무려 55년 동안 정상에 오르지 못했다. 한국이 아시안컵에 12차례나 출전한 최다 출전국이고 그 가운데 9차례나 4강에 진출한 최다 준결승 참가국이라는 기록이 그 아쉬움을 대변한다.

이번 대회에서도 한국은 이란, 일본, 호주와 함께 정상을 노리는 4강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은 A조에 편성돼 10일 오만, 13일 쿠웨이트, 17일 호주와 조별리그 1~3차전을 치른다.

올해 아시안컵은 4개국씩 묶인 4개조로 조별리그를 운영해 각 조의 2위까지가 8강에 진출한다. B조에는 우즈베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북한, 우즈베키스탄, C조에는 아랍에미리트, 이란, 바레인, 카타르, D조에는 일본, 요르단, 팔레스타인, 이라크가 편성됐다.

A조와 B조, C조와 D조가 8강에서 맞붙는 까닭에 한국은 숙적 이란을 8강에서 만나는 질긴 인연을 끊었다.

한국과 이란은 1996년부터 최근 대회인 2011년까지 5차례 연속으로 8강에서 만나 승부차기 승리를 포함해 2승1무2패를 기록했다.

슈틸리케 감독은 “냉정하게 FIFA 랭킹을 따지면 이란, 일본에 이어 아시아 넘버3”라고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이번 아시안컵이 아시아 랭킹을 끌어올리고 세계 축구로 나아가는 시발점이 되는 대회가 되기를 고대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